

K여자대학생들의 전자책 사용실태와 향후 전망

K-Women University students' current & future usage of ebook

황 의 철
광주여자대학교

Hwang eui-chul
Kwangju Women's University

요약

전자책은 물리적 제약없이 어디서나 구입할 수 있고, 고속으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종이책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전자책 시장의 부상은 전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추세다. 본 논문에서 K여자대학교 학생들의 전자책에 대한 인식과 사용실태를 분석한다. 아마존의 전자책 단말기인 '킨들'핵심 개발자 제이슨 머코스키가 '스마트클라우드쇼 2014'의 발표에 따르면 '2년후 한국 인구의 절반은 전자책 단말기를 갖게 될 것' 이라고 발표하는 등 전자책 향후 전망에 대하여 알아본다.

I. 서론

1. 전자책의 현황

'스마트클라우드쇼 2014'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제이슨 머코스키(Jason Merkoski)는 "전자책은 물리적 제약 없이 어디서나 구입할 수 있고, 빠르게 내려받을 수 있으며, 종이책보다 싸기 때문에 독자들을 매료할 것"이라며 이렇게 예상했다. "한국은 2016년까지 독자 2명 중 1명은 어떤 형태로든 전자책 단말기(태블릿이나 스마트폰 포함)를 갖게 될 것"이다[1].

전자책은 가벼운 단말기에 수천권의 책을 저장할 수 있다. 1000페이지가 넘는 종이책도 내용만 담을 수 있는 것이 전자책이다.

이 같은 장점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준 전자책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2013년 국내 전자책 시장규모는 4억8800만달러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자책 시장규모의 19.7%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됐다. 지난해 국내 도서출판 규모는 22억4100만달러로 이중 전자책은 21.8%를 차지했다. 국내 전자책 콘텐츠 시장은 오는 2017년 7억75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도서출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2.4%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는 2017년 글로벌 도서출판 시장 규모는 1043억 3000만달러로 전망된다. 종이책 쇠퇴에도 불구하고 전자책의 성장이 전체 시장을 이끌어간다는 설명이다[2].

2. 전자책 단말기 현황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강세에도 여전히 전자책 전용 단말기는 상대적으로 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데다 다양한 독서노트 기능을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미국 아마존의 킨들과이어가

전자책 단말기 시장을 열었다면, 국내에도 이에 도전하는 전자책 전용 단말기들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 100권중 전자책으로 나온 것을 표시 해놓은 표이다.

인터파크가 지난해 출시한 '비스킷 탭(Biscuit Tab)'은 인터파크가 운영하는 전자책 앱 '비스킷'에 최적화된 단말기다. △SNS 플랫폼 연동을 통한 지인들과 전자책 내용 공유 △책과 동일한 입체감 및 페이지 넘기기 △메뉴 표시를 드러나지 않게 구성해 본문 집중도를 높인 UI(사용자환경) 등을 지원한다.

교보문고가 지난해 선보인 '샘(Sam)'은 국내 최초 회원제 전자책 서비스다. 전용 단말기를 출시하면서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 샘은 사용자에게 적합한 책을 찾아주고 권해준다.

인터넷 서점 예스24가 출시한 전자책 단말기 '크레마(Crema)'는 여러 제품군을 가지고 있다.

2014년 선보인 7인치 컬러 단말기 '크레마 원(crema 1)'은 오락기능까지 더했다. 예스24에서 제공하는 7000여 편의 영화·드라마 다운로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컬러 화면을 십분 활용해 700여종의 움직이는 그림동화, 3000여편의 작가들의 강연 콘텐츠 '북러닝' 등도 즐길 수도 있다[3].

표 1. 알라딘 소설/시/문학 베스트셀러 100권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 100권	전자책 변환
예스24 종합 베스트셀러	34권
알라딘 종합 베스트셀러	28권
예스24 문학 베스트셀러	35권
알라딘 소설/시/문학 베스트	29권

출처: <http://blog.daum.net/za3ie1v2b6i/5> 재구성

표 2. 전자책 전용 단말기 주요사양 비교

항목	인터파크 Biscuit Tab	교보문고 Sam	크로마윈
OS	Android 4.2 (Jelly bean)	Android 2.3	Android 4.2 (Jelly bean)
CPU	Rockchip RK3188 Quad-core ARM Coretex-A9(1.6GHz)	800MHz	1.2GHz쿼드코어 (Allwinner)
Display	7인치, IPS-LCD패널 해상도 1280*800	6인치 E-ink Display 758*1024p	7" HD IPS (1280*800)컬러
내장 메모리	16GB	4GB	2GB
RAM	1GB DDR	256MB	2GB
카메라	전면 30만화소	없음	전면 300만화소
출시년도	2013. 8	2013. 2	201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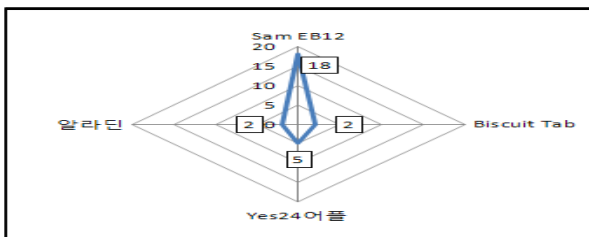
II. 본론

1. 여자대학생들의 전자책 사용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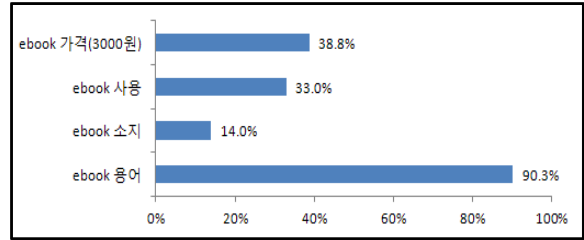
2014. 9.1~9.5까지 K대학교 여자대학생 136명을 대상으로 '전자책(ebook)이란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90.3%, '전자책(ebook)을 소지하고 있는지' 14%, '전자책(ebook)을 사용해본 적이 있는지' 33%, '월 단위에 무제한으로 전자책을 볼 수 있다면 이용 하겠는가'가 58%, '전자책의 한권 값으로는 3000원이 적당하다'가 38.8% 이었다, '전자책을 소유하고 있다'가 14%, '전자책을 소지하고 있다면 어떤 것인지'에서 교보문고, SAM EB12 4GB가 16%, 알라딘, yes24 어플 이용 5.6%, 인터파크 Biscuit Tab 1.6% 순이었다.

아직 전자책에 대한 관심과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전공서적이거나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교과목들이 전자책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학과나 전공과목의 심화학습을 기존의 책을 통하여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견해이다.

전공관련 참고서적이거나 세계문학전집 등이 전자책으로 변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외에서는 [표 3]과 같이 학술/전문서적/픽션분야 책 등이 변환되고 있으며, 높은 전자책 성장률 보이고 있다. 디지털방식의 불법복제는 아날로그 방식에 의한 불법복제보다 손쉽게 생각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사는 개념이 정착되지 못했다. 전자책을 읽는 도구로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권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미국이나 유럽은 태블릿PC나 전자책 전용 단말기를 선호하여 국내에서 전자책에 대한 증가가 크지 않은 원인도 있다.



▶▶ 그림 1. 전자책 단말기 이용(K대학교, 2014.9)



▶▶ 그림 2. 전자책 사용 실태(K대학교, 2014.9)

2. 국내·외 전자책 시장 현황

세계 전자책 시장은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다. [표 3 참고] 향후 5년간 세계 출판시장은 연평균 0.6%씩 성장해, 2016년 1,157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종이책 이용자가 점차 줄어드는 대신, 전자책 이용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자책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4].

표 3. 해외 전자책 시장 동향 [5]

국가	전자책 비중	전자책 성장	비고
미국	22.5%	44%	2012년 30.4억\$
영국	12%	43%	학술/전문서적/픽션분야 주종
독일	2%	-	세계3번째 시장
프랑스	1.8%	-	전자책 10만종
스페인	0.9%	-	1260만 유로로 성장

출처: 2013. 8. 류영호 재구성

III. 결론

도서관 공간이 갈수록 부족하고 책 안 읽는 세대와 전자책이 늘어나 국내 대학에서도 지난해 67만권을 폐기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e-book을 사용해 본 33%의 K여자대학생들의 수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학도서관 예산에서 e-book과 전자저널 등 전자자료 구입비는 2013년에는 60.1%를 기록했다. 국내 전자책 콘텐츠 시장은 오는 2017년 7억75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도서출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2.4%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자책 전용 단말기 뿐 아니라 태블릿PC 등 범용 단말기, 널리 보급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책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콘텐츠를 접할 때 눈이 피로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의 개발이 과제로 남아있다[5].

■ 참고 문헌 ■

- [1] Jason Merkoski, chosunBiz 2014.9.1.
- [2] '글로벌 시장은 지금', 전자신문, 2014.8.24.
- [3] '전자책 뭘로 읽지? 국내 3대 전용 단말기로 볼까?', 머니투데이, 2014.8.9.
- [4] 한국콘텐츠진흥원, 코카포커스, 2012-12호(통권60호).
- [5] 류영호, '국내/외 전자출판 시장현황과 국내/전자책 마케팅 전략', 2013.8.